

## “개척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 ■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를 바친다.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보이는 것이 교회 간판이 즐비한데 무슨 개척교회가 아직도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신학생 수가 범람하니 그들의 일터 마련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도 있다.

#### 민족 복음화 위해 개척교회 더 필요해

민족 복음화라는 대의는 크게 외치면서 현재 기성교회만으로 민족 전체를 담을 수 있을까? 5천만 인구를 신자화 했다 가정할 경우 한 교회에 평균 500명 성도를 섬긴다 하면 교회가 10만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여서 50명 미만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평균 50명 교인으로 5천만을 담으려면 교회가 100만 개는 있어야 한다.

#### 잃어버린 양 없도록

현대사회에서 렌트문화가 확산되어 교회까지도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자손들이 섬기기보다 자기 편리한 교회를 찾아가 예배당을 빌려서(rent)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 우리 교회 개념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려면 몇 개의 대형교회만으로 모든 성도를 품을 수는 없다.

#### 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 오늘의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부지기수다. 그러면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그렇지 못한 이는 실패자란 말인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천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심한 박해와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고 바울은 실패자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종이 누구인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섬겨본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지만 개척교회 목회자의 강대상 앞에 놓인 의자의 방석은 목회자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어야 하고, 목회자의 발톱은 심방으로 빠져있기가 일수고, 머리와 허리는 하도 땅에 닿도록 숙이느라고 조 이삭처럼 굽어졌고, 다섯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만 명의 회중 앞에서 말씀 전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부목사도 전도사도 없으니 공예배 뿐 아니라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365일을 혼자 인도하고 교회당 청소 관리도 담임목사 몫이다. 회사는 나 혼자 다녀서 집에 오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목회자는 출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365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가 교회만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 사모님도 자녀들까지도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본을 보이며 엮으려야 하고 성도들 접대 위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야 한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는 상가 건물 전세로 들어가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예배당 옆의 사택은 커녕 예배실도 없는 처지에서 목회자의 주거지도 예배처와의 거리는 상관없이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오직 주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시 보게 되고 존경을 표하고 싶다.

#### 개구리 울챙이 시절 기억해야

안디옥교회는 개척 선교사를 파송할 때 B급 목사가 아닌 자신들의 담임 격인 바나바와 대신학자 사울 같은 최상급 목회자를 파송했다. 요즘은 성도들은 물론 젊은 목사님들조차 개척교회보다 규모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섬기고 싶어 하지만 개척 사명을 받은 엘리트들이 환경 때문에 받은 사명이 축소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대형교회들은 자신의 개척기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10월 5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시월의 마지막 날, 2021 사명자대회 넷째 주일입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주일예배 및 교회학교 예배가 대면예배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교회 예배 시설은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직회에서 제15대 장로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정된 공동의 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회원이 은혜 중에 피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공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31\\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31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 불안한 인생의 희망 ”

### ■ 시 43:1-5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가득합니다. 불안이란 ‘불편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실패, 결별, 외로움, 잊혀짐, 무기력 등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안을 이겨냈으며, 마침내 가정을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됩니다. 요셉이 불안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마음의 뿌리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불안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불안한 현실을 이겨내는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 1. 불안한 현실의 이유들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자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무기력과 두려움, 공포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절망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안을 이겨내는 유일하며 가장 우선적인 대책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42:1)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인데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인간을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에서 찾고 이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이는 외롭고 초라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바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 2. 수치의 불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 슬픔과 수치를 애타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2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42:3)라며 참담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수치심은 실패한 자기 모습이 사람들에게 노출 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본문에서도 시인은 참담한 현실과 원수의 억압 앞에 속수무책인 자기 수치를 말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실패인정은 하나님 앞의 회개와 기도로 이어집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반성과 회개로 자기 갱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평안으로 다가오고 수치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사 25:8)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3.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해결책이 없고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 이방인들이 비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희롱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실망스럽고 불안할 때 십자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때를 자기갱신과 변혁의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4(종교개혁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585(38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43: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불안한 인생의 희망”...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38(49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동수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00:3 ..... 인 도 자  
 찬 송 ..... 312(341) ..... 다 함 께  
 기 도 ..... 감동봉 집사  
 성 경 ..... 출 4:10-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 설 교 자  
 \* 찬 송 ..... 330(37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근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영정 권사 II 장애순 권사  
 부: 인 도 자  
 성 경 ..... 행 8:26-40 ..... 찬 양 대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주의 인도하심 따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조동수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 1. 공동의회 소집 공고

- 안건 : 15대 장로 선거, 원로장로 추대, 피택집사 추인
- 일시 : 2021년 11월 7일(주일) 찬양예배 후
- 장소 : 본당

### 알림

####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결혼

- 한승근 군(故 한형록 집사, 이상란 권사의 장남)과 김양언 양(11교구 김현영 집사, 최현인 권사의 처녀) / 11월6일(토) 오후 4시 한국교회 MW컨벤션 1층 컨벤션홀(02-575-833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앞 셔틀버스 이용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27명	480명	1,907명	477명	1,918명

##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회의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 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 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만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